

하루하루 꾸준한 노력이 비약 일궈내

〈飛躍〉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⑩ 어떤 걸 배울래? 골라 잡아!

이름을 얻고 제자가 된 손오공 배울 것도 많았다. 경을 배우고 도에 대해 토론하며 글을 배우고 향을 사르고 청소하고 발 가꾸며 물김고 꽃 기르고 나무 심고 그렇게 보낸 세월 어언 6,7년

어느 날 수보리 조사 대중을 크게 모으고 높은 선(禪)과 도(道)의 경지를 설파하다. 그 동안 남모르게 닦아온 손오공 환하게 마음이 열리니 그 기쁨 말할 수 없다. 손과 발이 저절로 들쭉이네 원숭이 식으로 출랑 출랑~

눈 밝은 조사님 이 모습 지나치실 리가 없지. “야! 이 사람같이 생긴 녀석! 미쳤느냐, 가려움증이나? 목은 왜 그리 들쭉이느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조사님 오묘한 설법 듣다 보니 희열이 넘쳐 저절로 손발이 들쭉이네요.”

“엥? 이 녀석 봐라! 무언가 얻은 게 있구나! 내 문하에 온지 몇 년이냐?” “햇수는 잘 모르지만 뱀산에 복숭아 일곱 번 익어서 따먹었구만요.” “어허 그래? 칠 년이 흘렀구나. 그동안 착실히 바탕을 닦은 듯하니 본격적으로 도를 배운다면 뭘 배우고 싶느냐?” “해해...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뭘 배우고 싶다고 말씀드리죠. 도대체 가지고 계신 게 어떤 건가요?”

“그 녀석, 말뼌새 하고는... 그래, 일러 줄 테니 잘 들어보아라! ‘도(道)라고 부르는 문 안에는 360개의 갈래 길이 있고 그 갈마다 다 수행의 성과가 있느니라’ ‘다스리긴 힘들 테니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차례로 설명해 주시죠’

“험! 그러자구나. 우선 첫 번째로 ‘술(術)이라 부르는 문이 있다. 신선을 청해서 모시거나, 쾌를 뿔아 점을 치는 등등 이러 저러한 술법으로 흥한 것을 피하여 길한 쪽으로 나아가는 이치를 알 수 있느니라. 이거 가르쳐주기 아까운 건데... 배울래?”

“그 방법으로 죽음을 피하고 오래 살 수 있나요?” “택도 없지!” “그럼 그런 건 안배울래요!” “호~ 이놈 봐라. 욕심은...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자, 우리 손오공 이제 본격적으로 배움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우선 기초부터 착실히. 기초가 없으면 아무 것도 안되거든요. 건물을 짓더라도 기초가 튼튼해야 하듯이, 바닥 잘 다지지 않고 고층 건물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는 잘 아시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폭삭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손오공은 그런 일없이 착실히 기초공사 합니다. 무려 장장 7년 동안이나. 도대체 몇층짜리 건물 올리려고 그렇게 오래 기초공사를 하느냐구요? 해해~. 그렇게 기초공사 하는 동안의 감각함을 참지 못하고 조금씩 잔재주 피우는 길로 나가면, 그런 사람은 크게 되기는 틀린 겁니다.

한마디 더 보탠다면 공부를 하거나 수행을 하거나 그 발전이라는 것이 덧셈 식으로 하루 하면 하루 나 아지는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진보가 되지 않는다는 것, 꼭 알아주세요. 한 동안은 진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감각한 세월이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확 달라지는 것 같은 비약이 일어나죠. 차곡 차곡 양적으로 쌓아 오는 과정이 계속되다 보면 차츰 차츰 질적인 변화가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질적인 변화는 하루 하면 하루 한 만큼 표가 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완전히 그 질적 변화가 일어났을 때 환연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 질적 변화를 통해 ‘비약(飛躍)을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비약에 이를 때까지 꾸준히 노력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한 사람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불행이 따르죠. 비약을 경험한 사람은 다음에 한 단계 높은 자리에서 시작하게 되니까, 이런 일이 계속되다 보면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맛있는 술이 익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듯. 오래 묵은 포도주 같은 거 있잖아요. 술뿐이 아니죠. 저는 요새 어떤 분이 보내준 50년 묵은 천량차라는 것을 마시고 있는데 정말 좋아요. 주로 호남성(湖南省)에서 나는 차(茶)인데 보이차와는 또 다른 풍취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나라에 유통되는 천량차나 보이차 몇십년 묵었다는 것 거의 가짜라고 하더군요. 천량차는 그 원산지에서 가서 확인한 결과 그렇게 오래 묵은 것이 그렇게 기간 없이 없다고 한다니까, 거의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보이차도 거의 비슷한 상형인 것 같구요. 그렇다면 우리 나라에 유통되는 그 많은 가짜들은 결국 어떤 속성의 방법을 써서 만든 사이비라는 이야기죠. 사이비라도 맛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구요? 무슨 천만의 말씀! 절대 사이비가 제 맛을 내는 경우는 없어요. 자칫하면 몸에도 해롭구요. 거기



그림 · 최주현

7년간 기초 다진 손오공 수보리조사 스승으로 연마 속성의 문제는 언젠가 발견돼

다 사이비가 진짜 노릇을 하면서 한 근에 몇 백만 원씩하고 있으니, 그 비싼 돈 들여서 몸 해치는 짓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쓸데없는 사치에 몸 해치지 말고, 그냥 적당히 좋은 차 구해 마시는 것이 낫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오래 된 고급의 차나 술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그 분야 최고의 기준으로서도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기준이 없다면 우리의 올바른 노력도 일어날 수 없으니까요. 이번엔 차 이야기로 해봤군요. 그렇지만 차 이야기는 해매더라도 충분히 의미있는 이야기가 되죠. 올

바른 차문화(茶文化)를 이룬다는 것은 우리 육체 건강과 정신 건강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후회하가 된다면 차 이야기로 해매니즘의 정수를 보여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재빨리 본 이야기로 다시 갑니다.

자~ 우리 손오공, 무려 7년이나 묵묵히 배웠습니다. 차곡차곡 쌓여온 것들이 어떤 질적인 변화를 이룰 시점도 되었겠지요? 그런데 이런 질적인 변화를 이루는 데 올바른 스승의 역할은 정말 결정적입니다. 잔뜩 고인 물이 나갈 곳을 찾지 못할 때 한 곳을 툭 뚫어주듯, 가스가 팽 찬 방에 불씨를 던지듯~ 엥? 무슨 폭발사고 날 일이 있느냐구요? 아고~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먼저 그 길을 걸었던 사람, 한발 먼저 깨우친 사람의 조그만 도움은 잘못된 길로 접어드는 것을 막아줄 뿐 아니라, 그 결정적인 변화의 순간을 이끄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심한 경우는 먼저 깨달은 이의 이런 촉매가 없으면 질적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게 바로 스승의 중요성입니다.

다행이 손오공은 올바른 스승 수보리 조사를 모시고 있네요. 그리고 그 스승께서 손오공의 무언가 터지기 직전의 팽 찬 마음에 아무튼 팽 찬 마음에 라이 타볼을 착~ 쳐 대었네요. 팡!!! 손오공 마음에 무엇인가 폭발! 그 폭발의 여파로 손과 발이 출랑출랑!

가볍게 표현하느라 말은 이렇게 하지만, 어떤 깨달음에서 오는 기쁨을 어찌 말로 표현하겠어요. 덩실 덩실 어깨춤이 절로 나는 그 희열은 아는 사람이나 아는 거죠. 유식한 한문으로 표현하면 “不知手之舞之 足之蹈之(부지수지무지 족지도지)”라. 해석하여 가로되 “자기도 모르게 손이 춤을 추고 발을 구르게 되는도다!”

바로 이런 순간에 다시 제자를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올바르게 인도하는 것도 스승의 역할! 요 사람 닮은 녀석! 뭐 조금 깨달았다고 출랑대지 말아라! 휘일선 더 좋은 거 많단다. 한번 골라잡아 배워볼래? 거창하게 구미를 둔구어 놓고는 하나씩 보파리를 풀어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첫 번째 보파리~ 술(術)의 문(門)이라. 이런 무슨 문일까요? 기대되시죠?

음~. 나칠계면 목욕대가 움직이시네요. 거 이름도 좋은 문이랑이요? 동중주의 문, 맥주의 문, 꼬냐의 문, 소주의 문.... 얼른 설명해 달라구요? 애고! 한자쯤 함께 읽어보세요. 그런 술이 아니라, 술법(術法), 기술(技術)이라 할 때의 술입니다. 아무리 한글세대라 해도 그정도는 아셔야죠. 다음 시간까지는 한자 공부도 조금 해오세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기쁜 재서 출간!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서 받은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기쁜 재서 출간!

바로보인 선문염송 제28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인 선문염송 전 30권중 28권 출간! 양산, 명초, 법안선사 등의 공안이 실려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마음대로 앉아 죽고 서서 죽고

우리를 모두 생사를 초월하여 해탈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대로 앉아 죽고 서서 죽기를 자재했던 이분들이 증명하고 있다. 이 책의 열반상들은 인류에게 있어서 큰 용기와 힘, 영원히 시들지 않는 향기가 될 것이다.

바른 불자가 됩시다

바른 신앙과 바른 수행의 길잡이!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도서출판 문전 (구, 바로보인) ☎ 031-534-3373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 전통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특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응축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한 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루 자색죽염	125g	40,000원	
가루 자색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색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색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색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색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색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혜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종 안내

충무원장 무공당 혜봉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 이루고자 네가지 큰서원(四弘誓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重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나갈 사찰 및 종도님(승려, 법사, 포교사, 보살님)을 널리 모십니다.

입종서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진(내,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침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침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맡으실 스님 우선적으로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감독을 주지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증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혜봉 스님 직통 010-3545-5060